



한국하버드엔칭학회
The Harvard-Yenching Visiting Scholars Association Korea

소식지 Newsletter



목 차
CONTENTS

1. 신입회원 소개
2. 2016-17년 객원 교수와 연구원 소개
3. 회원 소식: 활동/ 수상/ 발령/ 출간
4. 우리 학회 활동 소식
5. 엔칭연구소 소식(두웨이밍 전임소장)
6. 한국하버드엔칭학회의 옛 모습
7. 한국하버드엔칭학회 여름학회 개최 알림

1. 신입회원 소개

객원교수 Visiting Scholar

2015-16



구민교 Koo, Min Gyo
정치학, 서울대학교
mgkoo@snu.ac.kr



구정우 Koo, Jeong Woo
사회학, 성균관대학교
jkoo@skku.edu



김성례, Kim, Seong Nae
인류학, 서강대학교
snkim@sogang.ac.kr

발행: 한국하버드엔칭학회(The Harvard-Yenching Visiting Scholars Association, Korea)

발행인: 박낙규(Park, Nak-Kyu, goolchon@snu.ac.kr, +82-10-3791-4329)

발행일: 2016년 8월 23일(August 23, 2016)



이현정 Lee, Hyeon Jung
인류학, 서울대학교
anthrolee@snu.ac.kr

객원연구원 Visiting Fellow

2015-16



김석원 Kim, Seokwon
정치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sectarian@yonsei.ac.kr



박민수 Park, Min-Su
중국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minsupark@g.harvard.edu

어쏘시에이트 Associate

2015-16



배개화 Bae, Gaehwa
한국문학, 단국대학교 교수
gaenarie@daum.net

2. 2016-17년 객원 교수와 연구원 소개

객원교수

진세정(Chin, Sei-Jeong)
역사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진정원(陳廷媛, Jin, Jungwon)
역사학, 타이완 국립중앙연구원

객원연구원

송인희(Song, In Hee)
역사학, 이화여자대학교

송재영(Song, Jae-Young)
언어학, 연세대학교

어쏘시에이트

문지영(Moon, Ji Young)
정치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회원 소식

□ 회원활동(무순)



원우현 고문 (1982-83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 2016년 4월 몽골국제대학 부총장으로 임명된 후 동대학 국제언론정보연구원과 미디어학부를 창립하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최상용 회원(1979-80 고려대 명예교수)은 안철수 위원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인 '내일'이 주관한 '새 정치 실현을 위한 집중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최 회원은 안철수 의원의 창당에 핵심 지식인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신용하 회원(1967-68 서울대 명예교수)은 2015년 10월 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독도 침탈정책 강화 추세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명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최송화 회원(1977-78 서울대 명예교수)은 2015년 10월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을 주제로 연구원개원 1주년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11월 9일 ‘바람직한 사실심 심급 구조의 설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봉식 회원(1964-65 서울대 명예교수)은 2016년 6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대남 심리전 이대르들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병설 회원(2015-16 서울대학교교수)이 영화 ‘사도’ 자문료 및 참고문헌 사용료로 받은 5,000만원 전액을 ‘정병설-타이거픽처스 가람국문학술기금’으로 기부했다. 정 회원은 국문학자로서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바탕으로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재해석해 학계의 인정을 받았으며, 저서 ‘권력과 인간’이 최근 흥행한 영화 ‘사도’의 바탕이 돼 영화의 자문을 맡았다.



서정목 회원(1989-90 서강대 명예교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위원장의 직을 맡고 있다.



전봉희 회원(2003-04 서울대 교수)은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일본 큐슈대학의 한국연구센터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하며, 한국과 일본의 전통주거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2015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EAAC2015Gwangju(동아시아 건축역사학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 7번째로 열리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봉사하였다.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3월7일까지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 최초의 한국 전통건축 전시회 “땅의 깨달음”전에 협력큐레이터로서 전시의 전반을 조직하고 사찰배치모형 및 한옥건설과정 영상작업을 출품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하버드-엔칭도서관이 보관중인 「숙천제야도」를 빌려와서 국내에 처음 소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봉희 회원과 하버드의 김선주 교수의 협력이 계기가 되었다.

2016년 4월에는, 2012년에 출간한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도서출판 동녘)의 간추린 영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 『A Cultural History of the Korean House』(Seoul Selection)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한중연의 한국소개 영문서적 출판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으로, 해외의 공립도서관 등에 배포되어 한국의 주거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임지현 회원(2002-03 서강대 교수)은 2015년 8월 중국 산둥성 지난(濟南)에서 열린 ‘지구와 세계사 연구 네트워크(Network of Global and World History Organizations) 총회에서 임기 5년의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이 조직은 라이프치히에 본부를 두고 ‘국가 경계를 넘어선 역사’를 연구하는 국제학술단체로서, 임 회원은 “한/중/일 간에 참여하게 대립하는 동아시아 역사 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도 만들 포부를 밝혔다. 임 회원은 한편 대학 내에 트랜스 내셔널 인문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베를린의 나치범죄 자료센터와 함께 나치 점령기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을 비교하는 워크숍을 서울과 베를린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 수상



방인 회원(1997-98 경북대 교수)은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제 15회 다산학술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 발령



안예리 회원(2010-11)은 2016년 8월 1일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로 전직하였다.

□ 출간(무순)



서정목 회원(1989-90 서강대 명예교수)은 『요석(瑤石): '원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효성왕과 경덕왕의 골육상쟁』을 출간하였다. 서 회원은 오랜 연구주제인 신라 향가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2016. 4, 글누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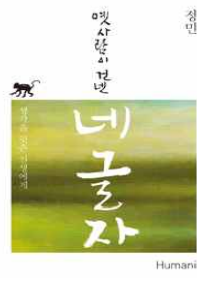


주경철 회원(1998-99 서울대 교수)은 『마녀』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17세기 유럽에서 전쟁으로 위기를 맞자 교회와 세속 권력을 지키려는 세력이 여성을 악마의 동조자로 취급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마녀 사냥이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중세에 기승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근대 초기 즉 16-17세기에 걸쳐 절정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놀랍게도 당시 악마론의 저서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데 새로 나타난 인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을 밝히고 있다. (2016. 5, 생각의 힘 펴냄)



송기호 회원(1997-98 서울대 교수)은 우리 조상들의 삶이 녹아 있는 생활사를 담은 '송기호 교수의 우리역사읽기' 총 7권을 완간하였다. 제1권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제7권 '강 넘고 바다 건너'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중·고교에서 암기 위주의 국사 교육을 개선하여 국사를 재미있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에서 이 기획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역사 서적과는 달리 사료 중심의 주제를 정하여 관련 자료를 배열한 뒤 설명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2016. 5,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



정민 회원(2012-13 한양대 교수)은 『옛 사람이 건넨 네 글자』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조선일보에 7년째 연재 중인 '정님의 世說新語'의 칼럼에서 100개를 골라서 편집하였다. 옛 사자성어를 모아 풀이하고, 단지 과거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저술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2016. 1, 휴머니스트 펴냄)

4. 우리 학회 활동 소식



2015년 여름학회가 8월 28일 신영연구기금회관(서울 관훈동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2015년 여름학회에서 주경철 회원(1998-99 서울대 교수)이 '모험과 교류의 문명사'라는 제목으로 흥미로운 강의를 하였다.



2016년 겨울학회 및 정기총회가 2월 25일 신영연구기금회관(서울 관훈동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서정목 회원(1989-90 서강대 명예교수)이 회칙에 의거하여 차기 회장(2016년~2018년)으로 선출되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 회원)



2016년 겨울학회에서 김현진 회원(2007-08 서울대 교수)이 '로맨스, 성형, 그리고 탈근대의 자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참석자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

5. 엔칭연구소 소식

두웨이밍(Tu Weimnig 杜維明) 전임 소장



두웨이밍 전임(1996년-2008년 재임) 소장이 2015년 11월 11일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조선일보 기자와 대담을 나누었다. "동양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려면 선비 정신을 갖춘 '유상(儒商)'의 리더십에서 해

답을 찾아야 합니다. ... 기업들이 미래에도 살아남으려면, 이윤 추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유학(儒學)에 기반을 두고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전임 소장은 이 같은 상생 정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결합될 경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은 유학과 상인(商人)의 줄임말로 선비 정신을 가진 기업 리더를 일컫는 중국어다. 최근 중국에선 시진핑 정부가 부패 척결 등을 강조하면서 윤리적인 기업가 정신을 키우자는 '유상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두 전임 소장은 10~11일 이틀간 베이징대와 장강상학원(CKGSB)이 주최한 '유상(儒商) 리더십 포럼'에서 선

비 정신이 동양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두 전임 소장은 얼마 전 불거진 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배기가스 조작 파문을 사례로 꼽았다.

"몇 해 전 중국 우유 제품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돼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런 현상은 기업이 급팽창하면서 CEO(최고경영자)가 단기적 목표에만 집착하고, 직원들이 관료화되면서 벌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기업은 직원들에게 비용 절감만 강조할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둔 신제품 개발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전임 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은 이미 동양의 기본 철학인 유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21세기에는 이 같은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5년 11월 13일 기사에서 발췌)

6. 한국하버드엔칭학회의 옛 모습



페어뱅크(J. Fairbank) 교수의 1961년 방한

20세기 중후반에 걸쳐 미국 내에서 중국사학의 태두로서 저명한 페어뱅크 교수가 엔칭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낸 한국 학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였다. 맨 왼쪽에 고 박준규 서울대 교수, 오른쪽에서 세 번째로 고 김준엽 고려대 총장(추정), 맨 오른쪽에 고 윤천주 서울대 총장의 모습이 보인다.



한국하버드엔칭학회 도장(1)

〈하버드 大學 客員教授協會 韓國支部長之印〉이라 새겨져 있다. 1950-60년대 초창기에는 한국, 일본, 타이완의 객원교수들이 귀국 후에도 학술교류를 계속하기 위하여 하나의 객원교수협회를 결성하고, 각국에 지부를 두는 형태로 출범하고 운영하였다. 도장을 새긴 연도는 미상이다.



한국하버드엔칭학회 도장(2)

〈한국하버드엔칭학회장의인〉이라 새겨져 있다. 도장을 새긴 연도는 미상이지만, 세 나라의 학자들 간에 상호 학술 교류의 빈도가 줄어든 이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하면, 1960년대 후반이나 1970년대 전반쯤일 것으로 보인다.

7. 한국하버드엔칭학회 여름학회 개최 알림

한국하버드엔칭학회 - 2016 여름학회 포럼

일시: 2016년 8월 31일(수) 오후 4:00-6:00
(6:00 이후에는 저녁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일 안내해 드립니다.)

장소: 신영연구기금회관(관훈클럽 소속) (약도: 아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9길 7(관훈동)
전화번호 : 02-732-8738, 02-732-8776

회비: 일반오천원 (안내: 박낙규 010-3791-4329 /
선승혜 010-3170-7665)

◆ 진행 순서

- 인사말씀
- 회원 소식 전달 및 저서 출간 축하
- 신입회원 소개 및 인사

◆ 포럼

전체 주제: 한국문화의 미래와 외국어문교육
Imagining Korean Culture: Strategies for Future
Foreign Language Education

제1 발제: 김현진(서울대, 2007-08)
“왜 지금 중세 (영)문학을 읽는가?”

제2 발제: 김진영(연세대, 2004-05)
“글로벌 시대의 주변부 어문학”

공동 토의자: 신경숙(연세대, 2000-01),
임주탁(부산대, 2007-08),
정병설(서울대, 2014-15)

【찾아오시는 길】

인사동길(안국동로타리-탐골공원)에서 인사동9길 (수도
온누리약국 건너편/한양화랑과 칼국수집 사이 골목)으
로 진입하여 30미터 앞의 왼편 건물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 2층



(태평로에 위치한 프레젠테이션 내의 관훈클럽과 위치가
다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